

일본 반핵운동가 반 히데유키 초청 강연 계획

I 강연 주제

-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의 진실과 방사능 오염수 방류의 영향

II 강연 목적

- 일본의 반핵 시민운동단체인 원자력자료정보실 반 히데유키 공동대표를 초청하여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의 진실과 교훈, 그리고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대해 일본 시민사회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다.

III 강연 개요

- 일시 : 2023년 5월 9일(화) 오전 10시
- 장소 : 환경도서관
- 참석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관심있는 모두
- 강사 : 반 히데유키(원자력자료정보실 공동대표)
- 주최 : 공동주최를 희망하는 기관 및 단체(예 : 여수시의회, 어민단체, 한살림전남남부생협, 여수YMCA아이쿱생협, 여수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전남환경운동연합, 여수환경운동연합 등)

IV 강연자 및 원자력자료정보실 소개

- 반 히데유키(伴英幸)
 - 소개 : 1990년부터 원자력자료정보실 활동을 시작. 1995년 원자력자료정보실 사무국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1998년부터 원자력자료정보실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고속증식로 몬주 종합평가회의, MOX 종합평가회의, JCO 임계사고 종합평가회의 등을 조직하거나 참여해 왔다. 오랜 반

핵운동 경험과 기술평가 경험을 갖고 있으며, 반핵아시아포럼을 비롯한 아시아지역 핵발전소 문제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저서로 [원자력 정책대강비판]이 있으며, 와세다대학에서 사회학을 전공하였다.

□ 원자력자료정보실(原子力資料情報室)

- 소개 : 다카키 진자부로 박사 등에 의해 1975년 9월 설립된 원자력자료정보실은 일본의 대표적인 반핵운동단체이다. 핵발전소 폐쇄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시민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팜플렛과 소책자를 발간하며, 각종 연구회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 중 매년 발간되는 “원자력시민연감”은 일본뿐만 아니라, 전세계 핵발전 추이를 잘 다루고 있어 핵산업계에서도 반드시 챙겨보는 자료 중 하나이다. 원자력자료정보실은 핵발전소 폐쇄, MOX 연료 등 플루토늄 이용 정책 중지, 과도한 에너지 소비에서 탈피, 핵발전소 수출 반대 등을 주요 운동의 주제로 삼고 있으며, 최근 로카쇼무라 재처리공장 가동 반대운동, 가미노세키(上関) 핵발전소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다. 원자력자료정보실은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원자로설계자와 관련 공학자들과 함께 매일 인터넷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 일본 국회에서도 현황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한바 있다.

V 세부 일정

시 간	내 용	비 고
10:00 ~ 10:05(5분)	인사말 및 강사 소개	강홍순(여수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10:05 ~ 11:10(65분)	강연	강사 : 반 히데유키 통역 : 김복녀
11:10 ~ 11:55(45분)	질문과 답변	참가자
11:55 ~ 12:00(5분)	기념촬영 및 폐회	참가자

VI | 참고자료

- 서울신문 / 반핵운동가 반 히데유키 대표가 말하는 ‘후쿠시마 10년’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308015020>
- 한겨레 / 일 탈원전 운동가 “합의 없는 방류 절대 안돼”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58984.html
- 한겨레 / 일, 방사능 오염수 ‘안전한 희석’ 은 희망사항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34558.html